



충천 수타사의 동방지국천왕 수타사 사천왕상은 우리나라 사천왕상중 유일하게 표면이 유약 처리되었다.

### 비슷한 줄 알았는데 저마다 개성 넘치네

부름꾼 두 눈에 강렬한 색채, 금방이라도 살아 움직일 듯한 무기와 발밑에 깔린 악귀들의 형상. 사찰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천왕상은 일반인들에게는 공포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사천왕은 원래 고대 인도의 방위신(方位神)이었지만, 불교에 귀해 부처와 불법(佛法)을 지키는 수호신이 됐다. 동쪽의 지국천왕(持國天王), 남쪽의 증장천왕(增長天王), 서쪽의 광목천왕(廣目天王), 북쪽의 다문천왕(多聞天王)으로 이루어진 사천왕상은 그 강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학문적·예술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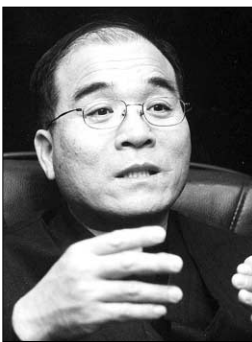
<사천왕>은 이처럼 일반인들의 시선이 쉽게 미치지 않는 사천왕상을 주제로 한 사진집이다. 관조 스님이 보림사와 능가사, 통도사, 불갑사 등 여덟 사찰의 사천왕상을 사진에 담았다. 현존하는 사천왕상 중 가장 앞선 시기에 제작된 장흥보림사 사천왕상과 온화한 표정에 미소를 머금고 있는 청도 적전사 사천왕상 등이 눈길을 끈다. <사천왕 백서>를 펴내는 등 사천왕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건축가 이대암씨가 '사천왕상의 기원과 역사'란 글을 덧붙여 이해를 돕는다.

그동안 스쳐지나갔듯 보았던 사천왕상의 화려한 색채와 저마다의 개성을 꼼꼼히 살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천왕 관조 스님 사진 이대암 글 한길아트 6만원

## “깨달았다고 착각 말라”



### ■ '원각경' 해설서 낸 이제열 유마선원장

“수행자들은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거나 깨달음의 경지를 실제화·대상화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깨달음의 그림자, 즉 허깨비가 되는 것입니다. 얻어진 경지를 인정하거나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각경>의 가르침입니다.”

도서출판 여시아문이 펴내는 '현대인을 위한 경전시리즈' 첫 번째로 유마선원을 이끌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이제열 원장(사진)의 <원각경> 해설서가 나왔다. 그동안 이 원장이 유마선원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원각경>은 대승경전 중 하나로 부처님이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안보살, 금강장보살 등 12보살과 나눈 문답을 담은 12장으로 구성돼 있다. '돈오(頓悟, 단박에 깨침)'의 가르침을 역설하고 있는 <원각경>은 불교수행의 이론과 실천을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문체가 유려하고 사상이 심오해 철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 보조지눌 선사가 이 경을 중시했고, 조선 초 함허득통 스님이 <원각경소(疏)>를 지으면서 중요한 수행 경전으로 채택했다. 지금도 강원에서는 <능엄경> <대승기신론> <금강경>과 함께 사교과(四教科)로 채택돼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교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 원장 역시 “지고한 깨달음의 경지인 원각(圓覺)을 문교(文敎)적 측면에서 설명과

가르치고 있는 <원각경>은 삼근기나 하근기 수행자 모두가 필수적으로 의지해야 할 경전이다”고 강조한다.

### “앓과 깨달음이 사라진 상태 바로 알 수 있는 길 제시”

동시에 그에 이르는 수행법을 점교(漸敎)적 측면에서 가르치고 있는 <원각경>은 삼근기나 하근기 수행자 모두가 필수적으로 의지해야 할 경전이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원각'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원각이란 가장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말한다. '원(圓)'이란 본래 둥글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의 일체의 번뇌가 끝까지 다하여 그 마음이 세계와 더불어 평등해진 경지를 의미합니다. '각(覺)'은

깨달았다는 뜻으로 증생의 근원적인 어리석음인 무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온갖 법의 근본을 꿰뚫어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지가 지극하여 더 뒤를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는 최상 무극의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가리켜 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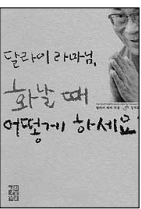
이러한 원각에 이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르고 있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장인 '보안보살장'이다. 여기서는 나와 세계의 본질, 부처의 본질, 깨달음의 본질이 모두 허깨비라고 보고, 이 모든 허깨비를 여의기 위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머물고 어떤 방편을 써야 하는지를 일러준다.

“수행이나 깨달음이 모두 허깨비라고 해서 깨달은 경지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삼스럽게 의지해야 할 깨달음이 없다는 것이죠. 허깨비를 허깨비로 보고 앓과 깨달음이 사라진 상태를 바로 알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원각경>의 가르침입니다. 수행자는 이 원각법문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깨달아 들어가는 방향으로 삼고 증생을 교화하는 도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원각경 이제열 지음 여시아 | 9월5백원

### 달라이 라마의 세상사는 지혜



### 달라이 라마님,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

달라이 라마 지음 | 김석희 옮김 | 열린책들 | 8천5백원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감정의 변화는 아마 '화'일 것이다. 화가 났을 때면 '마음을 비우라'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보라'는 선지식들의 가르침은 잘 생각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설사 생각 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달라이 라마가 지난 200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했던 주요 강론과 법어를 녹취 정리한 <달라이 라마님, 화날 때 어떻게 하세요?>는 '티베트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달라이 라마는 과연 어떻게 화를 풀까?'라는 의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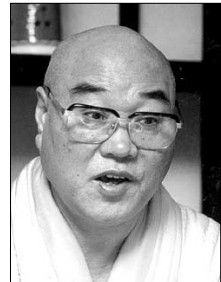
“나도 때로는 화가 나거나 울화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노의 감정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면 분노의 감정이 오랫동안 마음에 머무르는 일은 없으니까요.”

물론 단순히 '내버려 두는 것'만으로 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달라이 라마는 수행을 통해 화나 분노 등 일시적인 조건에 의해 기분이 좌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방편으로 달라이 라마가 불소 제독한 보살 수행과 분석적 명상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과학기술의 발달' '반전운동' '빈부격차' 등 다양한 주제의 법문과 청중들과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화사 경연자로서의 올바른 마음가짐, 직장 내 갈등 해소 방법, 폭력이 범람하는 현실에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바른 자세 등 세 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op@buddhapia.com

### 월서 스님 고회기념 법문집



“화합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화인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계승처럼 일체중생을 부처님으로 섬기면 됩니다. 자기만 잘났다고 어리석은 짓을 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모두 조금씩 양보한다면 이 세상은 대립과 갈등이 없어지고 화합의 웃음꽃이 피어날 것입니다.”(‘화합의 공동체를 위하여’)”

조계종 화계원장 월서 스님(사진)의 고회 기념 법문집 <월서선사 원경록(圓鏡錄)>이 나왔다. 월서선사법어집 발행위원회가 ‘죽은 뒤에는 모를까 살아서는 안된다’며 법문집 발간을 고사한 월서 스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펴낸 책으로, 스님의 법문과 신문·잡지 기고문, 인터뷰 등을 실었다.

월서 스님은 1956년 구례 화엄사에서 금오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59년 부산 범어사에서 통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동화사와 해인사, 봉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수행하는 한편 중앙종회의원과 조계사 주지, 불국사 주지, 제8대 중앙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장계사 조실 고산 스님은 “이 법어집은 월서 스님이 평생 불문(佛門)에 머물며 받은 은혜를 다시 법계(法界)에 회향하는 대작불사”라며 “그러나 달을 불지언정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지 말아야 할지 화상의 법어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02)919-0211

월서선사 원경록 월서 스님 지음 | 월서스님법어집집행위원회 | 비매품

### 새로운 책

■ <삼각산 풍경소리>(송금영 지음, 세운, 9천원) = '불교의 피서법은 더위와 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더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여 따로 내 몸에서 떼어놓고 생각을 하니 그것을 피하고 식혀야 할 일이 생긴다. 그것과 하나가 되어 버리면 돌이 아니므로 그것을 피할 것도 식힐 것도 없다.' 형식이나 내용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수필은 누구나 쓸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학 장르다. 하지만 그 속에 '삶의 지혜'가 담겨있지 않으면, 곁에 두고 몇 번씩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수필의 맛'을 느끼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세이집 <삼각산 풍경소리>에는 월간 <법사>와 <금강> <불교> 등의 주간 및 편집인을 거친 지은이의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수필 60여편이 담겨 있다.

■ <히포파데사>(나라야나 지음, 이지수 옮김, 통나무, 1만5천원) = 인도 고대 우화집 <히포파데사>를 인도철학 연구에 전착해 온 이지수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가 우리말로 옮겼다. 유익한 (hita) 가르침(upadesa)이라는 뜻의 <히포파데사>는 위슈누사마라라는 스승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수다르사나 왕의 아들에게 갖가지 우화를 통해 지도자가 알아야 할 처세의 지혜를 일러주는 내용이다. 힌두교 최고의 경전인 <사가버드기타>, 희곡 <사문달라>와 더불어 범어문학의 고전으로 꼽힌다. 도솔 김윤옥은 책의 서문에서 “<히포파데사>나 초기불교경전인 <숫타니파타>는 동일한 문명에서 성립한 동일한 인간의 깨달음에서 우리나라는 것이다”고 적고 있다.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Lists top 10 Buddhist books.

Advertisement for Zen Paradise featuring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about Zen teachings.

Advertisement for 'Onyeokbokdae' (온열복대) heat therapy product, highlighting its benefits for back pain and health.

Advertisement for 'North Korean Gold Mountain Amrita' (북한산 금강염주) jewelry, featuring a necklace and its purported health benefits.

Large advertisement for 'Inmyeong' (인명) book, featuring a portrait of the author and promotional text about the book's impact on fate.